

군산 불교 이끝 불교회관 문 열다

흥천사 10월 25일 반야불교회관 개관

대한불교보문종 흥천사(주지 법희)가 반야불교회관을 개관했다.

흥천사는 10월 25일 순천 송광사 유나 현목 스님, 흥천사 회주 지환 스님, 군산 상주사 주지 도원 스님, 문동신 군산시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야불교회관 개관법회를 봉행했다.

군산 시민들이 즐겨찾는 월명공원 입구에 자리잡은 반야불교회관은 대지 924㎡의 부지에 지상3층 건평 693㎡ 규모로 건립됐다.

이날 법회에서 현목 스님은 “부처님께 서는 사원을 건립하고 자비심 갖는 것이 가장 수승한 공덕이라 했다”며 “깊은 통찰력을 길러 반야지혜를 닦는 공간으로 활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지 법희 스님은 “앞으로 불교회관을 불자들이 뿐만 아니라 군산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건립취지를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안 개암사, 천왕문 상량 법회

내소사와 함께 부안의 대표적 사찰인 개암사(주지 재안)에 천왕문이 들어서게 된다.

개암사는 10월 25일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중앙총회의원 초계 스님, 광주 수도사 주지 청호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천왕문 상량식을 봉행했다.



불교 앞에 정면 3칸 측면 2칸 맞배지붕 형식으로 건립되는 천왕문은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11월 중으로 높이 약 4m의 사천왕상이 봉안될 예정이다.

개암사 주지 재안 스님은 “그동안 대응보전 단청 불사 등 개암사의 대소불사에

동참해준 불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부안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로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암사는 지난 10월 18일 산신대제와 제2회 우금문화제를 열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 나서기도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강진 읍천사, 제1회 선각불교문화제

선각종 총본산 강진 읍천사(총무원장 정암)는 10월 2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제1회 선각불교문화제’를 봉행했다.

올해로 창종 15주년을 기념한 이날 행사에는 정암 스님, 자강 스님(선각종 승정 원장), 벽해 스님(중앙포교원장), 원정 스님(중앙총회위원장)을 비롯해 이준범 강진군 문화관광과장 등 500여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암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읍천사에서 불교문화의 정수를 체험하고, 많은 분들과 이 문화의 공유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광종합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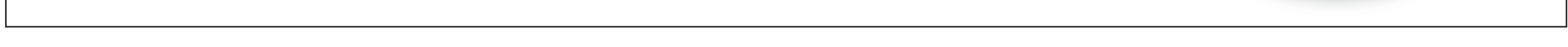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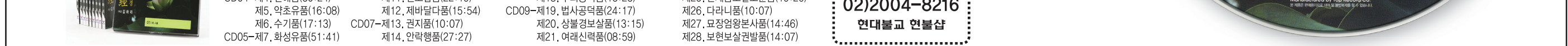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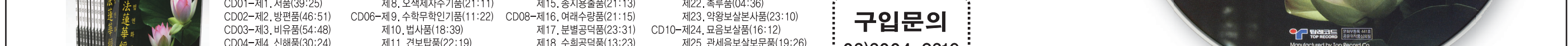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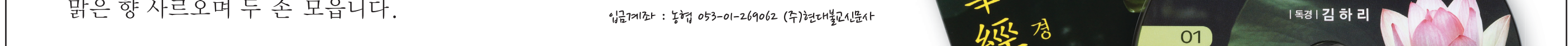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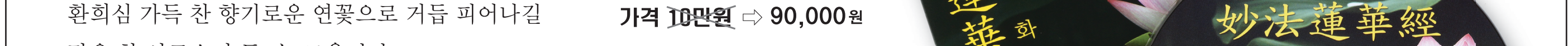
지역주민잔치 개최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제)은 10월 26일 평산구 우산동 구민공원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한가족 한마당 나

눔문화’ 행사를 개최했다.

송광복지관이 아시아밖음공동체, 주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는 도제스님, 이용섭 전 국회의원과 문태환 광주시의회부회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8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기념행사와 나눔 문화행사가 열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남원 실상사 약사전 보물 제41호 철조여래좌상에 새로이 봉안된 후불탱화 ‘지리산 생명평화의 춤’. 이호신 화백이 그렸다.

실상사 약사여래, ‘지리산’을 품다

실상사, 10월 25일 약사전 후불탱화 봉안법회

지역·문화·민중의 삶 담아낸

지리산 전도를 후불탱화로

한국화가 이호신 화백 그려

“탱화는 시대와 인간상 반영

약사여래 12대원 이뤄낼 것”

신라시대 고찰인 남원 실상사(주지 응묵) 약사전에 봉안된 보물 제41호 철조여래좌상에 지리산을 품은 후불탱화가 봉안됐다.

실상사는 10월 25일 약사전에서 철조여래좌상 후불탱화 봉안식을 개최했다. 이번 봉안된 약사전 후불탱화는 기존의 사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탱화와는 다르

다. 지리산의 사계와 문화를 그림을 통해 풀어냈기 때문이다.

생활 산수화로 유명한 한국화가 이호신 화백이 그린 후불탱화는 ‘지리산 생명평화의 춤’을 제목으로 하고 있다. 한지에 혼합 채색했으며, 가로 690cm, 세로 184cm인 대작이다.

‘지리산 전도’를 표방한 후불탱화는 남원 와운리의 ‘지리산 천년송’이 화면 중심에 있고 좌우로 나뉘어져 지리산의 풍광이 펼쳐진다. 또한 남원, 함양, 산청, 하동, 구례의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자연 생태가 조화롭게 배치돼 있으며, 농사를 짓는 사람과 자동차, 애완동물 등 생활상도 그려졌다.

전체적으로 진경산수화기법으로 그려진

후불탱화는 산세만 농묵으로 처리돼 있고, 주제는 먹선으로만 표현했으며, 사계절의 생태가 전부 보여지도록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이번 작품 조성에 대해 이 화백은 “이번에 조성한 탱화는 지리산 천왕봉을 향해 앉은 불상의 뜻을 역사적으로 기리고, 오늘의 현실을 살피며, 미래를 향한 부처의 마음을 담고자 했다”면서 “21세기 불교회화로서 종교를 넘어서 만민에게 공감을 주는 새 시대 정신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날 봉안법회에서 실상사 조실 월주 스님과 주지 응묵 스님은 이번 탱화가 우리 시대 불교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조실 월주 스님은 격려 발언을 통해 “탱화로 잠입된 약사여래는 모든 중생이 무명심을 타파하고 깨달음의 경지를 얻어 약사유리광 불국세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

다는 원을 세운 분”이라면서 “오늘 후불탱화 봉안으로, 나를 둘러싼 모든 존재들이 불보살임을 깨우치는 일대사가 이뤄지길 발원한다”고 기원했다.

주지 응묵 스님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탱화를 역시 지난 시대의 사회상과 인간상을 반영한 것”이라며 “약사여래 후불탱화 ‘지리산 생명평화의 춤’은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부처님, 보살님, 천신들, 호법성중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불탱화를 봉안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탱화에 담긴 가르침을 우리 삶에서 수행하는 것”이라며 “대의왕이신 부처님의 제자로서 약사여래 12대원에 담긴 대지비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 사부대중의 원력이 되고 삶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79@hyunbul.com

통일·생명평화 기원하고 추수 기쁨 맛보고

전남·전북 불교계 베타기 행사 잇달아

화엄사 통일쌀 추수 행사 개최

생명평화실천단, 생명평화 베타기

화엄사(주지 영관)는 쌀값 안정과 북한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작한 6만 6천 제곱미터 쌀을 10월 23일 수확했다.

화엄사와 구례군 농민회, 가야자동차노동조합 광주지회가 지난 2007년 발족한 통일쌀 공동경작단은 화엄사 소유 토지에서 총무국장 효광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과 구례군 농민회, 장애인복지관 법현스님 등 100여 명이 동참해 베타기를 진행했다. 이날 수확한 벼는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한에 전해질 예정이다.

구례군 통일쌀은 지난 2007년부터 화엄사 소유의 20,000평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전북불교네트워크 부설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은 10월 24일 ‘생명·평화 베타기’ 행사를 개최했다.

10월 24일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소재 논에서 ‘생명·평화 베타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베타기에 동참한 청소년 22명과 지도교사들은 지난 6월 직접 심은 약 400평의 논에서 직접 벼를 수확하는 성취감과 기쁨을 누렸다.

베타기 행사에 직접 참가한 박세민(전주 제일고 1학년) 학생은 “내가 직접 심은 모가 무더운 여름을 이기고, 벼가 된 걸 보고 있으니 기분이 색다르고, 감동 받았다”며 “가뭄으로 벼농사가 잘 안 됐을까봐 걱정했는데, 건강한 벼라서 벼가 된 걸 보니 그동안 열심히 키워주신 농부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수확한 벼는 전북불교네트워크와 부타도살자 전북모임 등의 후원을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조동제 전북지사장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신인작가 발굴 공모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에서 운영하는 로터스갤러리가 지역 신인작가 발굴을 위한 공모에 나선다.

로터스갤러리는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4회 로터스갤러리 신인작가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회화, 조각, 설치, 사진, 만화, 디자인, 공예, 의상, 건축 등 시각 예술분야 10여 명으로, 광주·전남지역 거주 35세 이하의 신인작가는 참가할 수 있다.

로터스 갤러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역량을 펼치고자 하는 청년 작가들이 많은 지원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신인작가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작품을 전시하며, 소정의 전시지원비와 공간, 인쇄물, 사인물, 홍보 등을 지원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동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제15, 총지용출품(21:13)	제22, 축루품(04:36)
CD02-제2, 방편품(46:5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6, 여래수랑품(21:15)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03-제3, 비유품(54:48)	제10, 법사품(18:39)	제17, 분별공덕품(23:31)	CD10-제24, 무음보살품(16:12)
CD04-제4, 신해품(30:24)	제11, 건보탈품(22:19)	제18, 수회공덕품(13:23)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5, 약초유품(16:08)	제12, 재바달다품(15:54)	CD09-제19, 반사공덕품(24:17)	제26, 다라니품(10:07)
제6, 수기품(17:13)	CD07-제13, 권지품(10:0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14, 안락행품(27:27)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연불샵